

# 빌헬름제국 시기(1890-1914) 독일 사회민주당과 의회활동

박규정(朴奎政)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비스마르크 시기(1870-1890)의 의회활동 | 참고문헌     |
| III. 빌헬름 시기(1890-1914) 의회활동   | Abstract |
| IV. 의회활동 변화의 동기               |          |

Key words(중심용어): 제국의회(Reichstag),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 사회정책(social policy), 독일제국(Imperial Germany), 노동조합 (trade union)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제국 시기, 특히 빌헬름 제국시기(1890-1914)의 독일 사회민주당이 의회활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독일제국은 비스마르크 시기(1870-1890)와 빌헬름 시기(1890-1914)로 구분된다. 비스마르크가 집권했던 시기 사민당은 의회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독일 제국의회(Reichstag)의 위상과 권한이 너무 약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즉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다하더라도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너무 명확했다. 따라서 소수의 제국의회 의원들을 배출했던,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기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 했던 사민당의 입장에서는 의회활동은 실효성이 없는 활동이었다. 빌헬름 시기에 들어 정치적 상황은 변했다. 철권 재상 비스마르크가 퇴임했고, 사민당을 박해했던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폐기되었으며, 한층 진일보한 사회정책들이 입안되었다. 특히 사민당은 제국의회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해 결국 1912년에는 의회 제 1당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회활동에 대한 사민당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동자 대중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려 했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정책을 도입하려 노력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사민당의 입장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과정을 통해 사민당 内の 개혁주의 노선의 등장과 확산, 노동조합의 발전, 제국의회의 지위강화, 그리고 가톨릭 정당인 중앙당(Zentrum)의 적극적인 의회활동 등이 사민당의 정책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I. 서론

독일제국시기(1870-1914)의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는 독일근대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연구영역에 속한다. 특히 ‘수정주의 논쟁(Revisionnismusstreit)’과 ‘총파업논쟁(Generalstreikdebatte)’, ‘예산동의(Budgetbewilligung)’에 관한 토론, 그리고 부르주아 정당과의 협력에 관한 논쟁 등이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연구들을 통해 1차 대전까지의 사민당의 전략, 전술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이 상세하게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특히 “혁명적인 수사로 장식된 이론”과 “사회 개혁적인 실천” 간에 나타나는 뚜렷한 불일치가 사민당內 여러 정파들 사이에 지속적인 대립을 야기하면서 독일제국시기 이 좌파 정당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각인했다”는 주장이 역사학계內에서 전반적인 동의를 얻었다<sup>1)</sup>. 또한 사민당과 노동자 대중의 독일사회에로의 ‘통합문제(Integrationsfrage)’도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특히 디터 그로(Dieter Groh)는 독일 노동자들은 혁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질서를 인정하면서 국가로의 통합을 원했지만 국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들이 빌헬름 제국에 적절히 동화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의 소위 ‘부정적인 통합(negative Integration)’ 테제는 격렬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sup>2)</sup>.

독일 역사학계에서 사민당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탁월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정당의 지도자,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책 등에 집중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독일 사민당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더 명확하게 밝히거나 보완되어야 대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독일제국 시기 사민당의 의회활동, 즉 제국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사민당의 입장에도 적용된다. 노동관계나 노동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정책(Sozialpolitik)과 같은 중요한 테마가 독일 노동자의 정치적 대변자로 인정되는 사민당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연구되지 않은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언급한 혁명적인 프로그램 내지 이론과 현실에서의 개혁적 행위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를 본질적인 테마로 하는 연구에서도 결점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사민당의 개혁노선이 핵심적인 연구대상이지만 사실상 개혁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사회정책의 문제는 기껏해야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소위, ‘노동자문제(Arbeiterfrage)’를 다루면서 독일제국의 사회정책을 면밀하게 연구한 탁월한 작업에서도 제국의회 사회 법안들의 입법과정에서 사민당의 역할이나 사회정책에 대한 그들의 시각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sup>3)</sup>. 이로 인해 특정한 법안들의 성립과정, 특히 사회입법과정에서 사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어떤 이유 때문에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같은 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빌헬름 제국시기 사민당의 의회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선 빌헬름 시기 이전 독일 제국의회에 대한 사민당의 입장과, 그리고 3장에서는 빌헬름 시기 의회활동에 관한 사민당의 태도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4장은 사민당의 입장을 변화시켰던 주요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민당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던 사민당

1) Ritter, Gerhard A.(1959), p.208 이하; Matthias, Erich(1957), p.155 이하; Puhle, Hans-Jürgen(1970), p.355; Miller, Susanne(1963); Steinberg, Hans-Josef(1972).

2) 독일 역사학계에서 큰 화두가 되었던 ‘부정적 통합’의 개념은 원래 귄터 로트의 다음의 연구에서 유래 한다: Guenther Roth(1963). 디터 그로(D. Groh)의 테제에 대한 비판은 특히 다음의 연구를 참조: Ritter, G. Albert(1977), pp.458-466; Ratz, Ursula(1982), p. 304.

3) 독일근대사연구에서 사민당과 의회의 관계를 단일한 주제로 다룬 Elfi Pracht의 연구에서도 의회주의에 대한 사민당의 반응만이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 독일제국의회에서 사민당의 구체적인 입법 활동은 결여되어 있다. Pracht, Elfi(1990).

내의 개혁주의 노선, 노동조합의 역할, 독일 제국의회의 위상변화, 그리고 중앙당(Zentrum)의 활동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다.

## II. 비스마르크 시기(1870-1890)의 의회활동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가 집권했던 시기 독일 사민당은 의회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sup>4)</sup> 의회활동에 대한 사민당의 태도는 1869년에 마련된 아이제나흐(Eisenacher) 프로그램과 그 후 개최된 사민당의 전당대회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특히 저명한 사회민주당 칼 립크네히트(K. Liebknecht)는 1870년 슈트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제국의회를 힘없는 “사이비 의회(Scheinparlament)”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의회에서의 활동을 “코메디”로 간주하였다.<sup>5)</sup> 또한 1874년에도 그는 이렇게 “전혀 힘없는” 제국의회를 사민당 활동의 “주무대(Hauptfeld)”로 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였다.<sup>6)</sup> 이 같은 입장은 사민당 내부에서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공개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부여된 유일한 헌법기관이었던 제국의회는 사민당에게는 대중들에게 자신의 원칙적 입장을 선전하는 장소 정도로만 활용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시작되는 독일 사회주의운동에서 헌법기관인 제국의회가 갖는 의미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입헌군주제였던 독일제국에서 제국의회가 차지하는 정치적 역할과 권한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책임의회제를 채택한 영국과는 달리 독일의 제국의회는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예산을 결정하는 헌법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을 통해 당시 실세였던 군부를 통제하는 데에도 많은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의회에서 다수파를 차지하더라도 제국의 정치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 같은 독일제국 고유의 정치체제가 제국의회에 대한 사민당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민당의 입장은 제국의회에 구성되었던 ‘제국의회위원회(Reichstagskommission)’에 참석하는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비상임위원회로 구성되며 의회활동의 핵심기구였다. 제국의회에 진출한 각 정파들이 법안들을 면밀하게 토론하고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장소였던 위원회는 선전이나 선동의 무대였던 제국의회 총회(Plenum)와는 다른 기구였다. 위원회의 결정은 사전에 각 정당들의 조정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국의회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위원회의 참석은 사민당에게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나 다른 정당들이 마련한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민당 의원들의 활동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이 같은 태도는 특히 1874년 제국의회가 ‘제국영업조례(Reichsgewerbeordnungsnovelle)’의 개정을 협의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사민당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개정안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은 他정당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개정협상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어떤 전략을 통해 관철시킬 것인가는 하는 것은 논의의 문제였다. 이 위원회에 파견되었던 사민당 대표

4) 사민당 내에서 벌어졌던 국민에 의한 “직접적 입법(direkte Gesetzgebung)의 역할”에 관한 논쟁에 관해서는 특히, Pracht, Elfi(1990)pp. 153-164; Miller, Susanne(1977).

5) SPD(1870), p.16.

6) SPD 1874), p.34.

율리우스 모텔러(J. Motteler)는 협상과정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에 관계하는 것도 거부했다. 그는 변호하기를 자신도 이 제국영업조례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자력으로 관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따라서 결선투표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통과되는 법안에 대한 공동책임을 모면하려 했다고 한다.<sup>7)</sup>

### III. 빌헬름 시기(1890-1914)의 의회활동

비스마르크의 집권시기와는 달리 1890년대 이래 사민당은 점차 의회활동에 임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사민당이 의회활동을 어떻게 간주했는가는 당의 가장 탁월한 사회정책 전문가 중의 하나였던 몰켄부어(H. Molkenbuhr)의 주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의회를 단순히 선동이나 선전의 장(場)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능성들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따라서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공간”으로 파악했다.<sup>8)</sup> 의회활동의 중요성과 사민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몰켄부어의 입장은 다음의 진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실용적인 활동들(positive Leistungen)’의 의미를 우리는 새로운 사상들을 입법화하는 것이라 이해한다. 초기에 이러한 행동들이 단지 낡고 쇠퇴한 생각에 저항했지만 지난 세기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 역시 실용적인 작업이다. (...) 우리가 마련한 수백 개의 법안들이 거부되었다면, 이에 대한 원인은 우리의 법안들이 ‘환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회가 작업이 유산계급의 이해를 거침없이 대변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사민당 의원들은 부르주아들과 용커(대지주)들이 저주하는 사회정책을 최초로 입법화 단계로 이끌었다. 그리고 작금에 각 정당들이 사회정책 법안들을 제출한다며, 이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회주의운동의 진보의 결과이다. 그들이 제출한 각 법안들은 우리가 이미 제출한 법안들의 저급한 모방과 훼손 외에 다름이 아니다.”<sup>9)</sup>

과거에 의회활동을 코미디로 비하했던 칼 립크네히트 역시 변화를 보였다. 그의 전향적인 입장은 이미 1897년 함부르크 전당대회에서 행했던 연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단지 소수의 지지자를 가졌던 당 건설의 초기에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이상(理想)을 선전할 연단을 이용하기 위해 제국의회에 갔다. 현재 사회질서의 부당함은 (...)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강력한 연설을 한다 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핵심적인 것은 현실의 토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동자 대중은 우리에게 모든 노동법과 다른 법안들에서 수정안 내지 법안제를 통해 현재 상태와 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sup>10)</sup>

사민당의 의회활동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들은 입법과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독일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사회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비록 사민당이 실천적인 개혁노선과 원칙론에 입각한 선동 사이의 궁극적인 선택을 피했고, 그로 인해 개혁 지향적인 정파와 소위, ‘정통과

7) Pracht, Elfi, *Parlamentarismus und deutschen Sozialdemokratie 1867-1914*, p. 202 이하.

8) 몰켄부어(Molkenbuhr)의 의회활동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의 연구서를 참조: Braun, Bernd(1999), pp. 133-189.

9) Molkenbuhr, Hermann(1907), pp. 21-29, pp. 93 - 98, pp. 118-128.

10) Protokoll des sozialdemokratischen Parteitags Hamburg 1897, p.144.

(Orthodoxen)' 사이에 존재했던 당의 내부적 긴장이 1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지만, 입법화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들의 처리에서는 당내 정치노선들의 차이를 무색하게 하는 통일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당내에서 전략과 전술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논쟁이나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입장들의 차이는 제국의회 의원들의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법안들을 다루었던 제국의회 위원회에서 정부초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했고 가장 많은 수정안들을 제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협상에서 사민당 대표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탁월한 전문지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인데, 이러한 지식들은 오로지 '노동세계(Arbeitswelt)' 또는 노동현장에서 스스로 경험해서 얻은 것이었기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비스마르크 집권 이래로 국가에서 주도했던 사회정책의 입안동기와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대중으로부터 사민당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스마르크가 퇴임하고 빌헬름 제국에서 다른 정치가가 사회정책을 주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제국의회 총회든지 아니면 제국의회 위원회든지 사민당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다. 실지로 입법과정에서도, 그곳이 제국의회 총회에서든지 아니면 제국의회 위원회에서든지 사민당을 적대시하는 소위 '사민당 선동의 위험(Gefahr der sozialdemokratischen Agitation)'과 같은 발언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법안에 반대해 사민당이 제출했던 대부분의 수정제안들이 부결되었고, 그들의 의견들은 철저히 거부되었다. 의회 내의 일상적 활동에서도 사민당 의원들은 다른 정파들이나 정부대표들에 의해 고립되거나 무시되었다. 그래서 1890년 '노동재판소법(Gewerbegerichtsgesetz)<sup>11)</sup>'과 1907년 '제국조합법(Reichsvereinsgesetz)'의 결선투표에서 사민당은 이들 사회법안의 통과에 반대했다. 하지만 사민당의 이러한 결정은 사회정책 전체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민당이 이들 법안들을 거부했던 이유는 이들 법안의 협상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킬 할 목적으로 제시했던 자신들의 중요한 의견들이 대부분 거부된 데에 기인했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 법안들의 통과가 노동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과될 법으로 인해 심지어는 법으로 보장된 기존의 노동자들의 상태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했다. 입법 활동에 대한 사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몰켄부어의 진술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 1899년 사회보험법의 결선투표에서 사민당은 제국의회에서 활동한 이래 최초로 찬성표를 던졌다. 사민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중앙당의 한 대표가 사민당이 입법 활동에서 결국 태도를 바꿨냐고 비아냥거리자, 그는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단 한 번도 법안통과에 찬성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 내용보다는 악화된 내용을 더 많이 포함했던 해당 법안에 있었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보험)법안에 대해 개선된 내용과 악화된 내용이 어디서 서로 상쇄되는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검토했다. 완전한 상쇄라면 우리는 역시 지금도 법안에 대해 반대했을 것이다. 사안은 지금 다르다. 우리의 판단에 따르면 악화된 점보다는 개선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안통과에 찬성을 표명했고, 만약 다른 법안들이 최소한의 요구에 너무 미흡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sup>12)</sup>

#### IV. 의회활동 변화의 동기

11) 박규정(2004-b), pp.23-48.

12) Reichstg(1899), p.2519.

## 1. 개혁주의 노선의 대두

1890년은 독일 사민당에게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몇 차례 연기되면서 10년 이상 사민당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던 ‘사회주의자탄압법(Sozialistengesetz)’이 폐지되었고, 1890년 2월에 실시되었던 제국의회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리고 장기간 집권하면서 사민당을 탄압하였던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퇴임하였다. 특히 35명의 사민당의 제국의원들을 등원을 가능하게 했던 제국의회선거에서의 성공은 사민당을 크게 고무시키면서 제국의회에서 사민당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를 주었다. 즉, 제국의회에 등원하는 의원 수에 비해 입법 활동에서 차지하는 사민당의 역할이 너무 빈약하다는 문제가 당 내부에서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의회활동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나타났다. 그리고 꾸준히 의석수를 늘리고 이윽고 1912년 제국의회 선거에서는 110명의 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의회 내 제 1당이 되는 사민당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sup>13)</sup>

1890년대 폴마(G. Vollmar)의 등장 이후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개혁노선은 당내에서 적지 않은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사민당의 과제는 더 이상 혁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가와 사회질서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의 현재의 경제적 상태와 정치적 지위를 점차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sup>14)</sup> 하지만 이러한 '개혁주의(Reformismus)'라 불리는 정치노선이 당내에서 전폭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개혁주의 노선은 사민당 지도부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게 된다. 사망할 때까지 사민당의 부동의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트 베벨(A. Bebel)과 당내 최고의 이론가로 인정받았던 칼 카우츠키(K. Kautsky)는 개혁주의를 당을 분열시키는 위험한 정치노선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세력 확산을 경계하였다. 베벨은 노동자의 요구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결코 일치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관계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바람은 궁극적으로는 단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다.<sup>15)</sup> 베벨에게 최우선의 과제는 당의 분열을 막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베벨은 사회정책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제한된 의미만을 부여했다. 이러한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베벨 역시 노동자의 상태를 기존 국가에서 향상시키려는 실용주의 노선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바람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실용적인 ‘개혁주의’와 ‘원칙론’ 사이의 궁극적인 선택을 거부했던 사민당의 전통은 특히 베벨의 이중적인 태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당시 성실하게 의회활동을 하지 않았던 일부 사민당 의원들을 질타하면서 의회활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회주의 국가의 미래를 참고하도록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사민당)가 그들(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노동자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 노동자들은 우리 당을 그들의 정치적 대표로 간주한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의 사회질서 틀에서도 노동자의 상태를 고양하고 개선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입장에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당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sup>16)</sup>

13) Varain, Heinz Josef(1956), p.45

14) Varain, Heinz Josef(1956), p.26; Steinberg, Hans-Josef(1972), p.109.

15) Ritter, Gerhard A.(1963), p.91.

16) SPD(1890), p.102.

베벨의 이중적인 태도 즉, 원칙론에 입각한 사고방식과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행동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사민당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베른슈타인(E. Bernstein)은 이를 가장 적절히 지적한다. “아우구스트(베벨)만큼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이론(Zusammenbruchstheorie)’을 믿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 베벨만큼 그 이론의 영향을 적게 받는 사람도 없다. 그가 실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증명한다면, 그는 아마 나의 목을 칠 것이다.”<sup>17)</sup>

사민당 내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려는 기미는 이미 1891년에 개최되었던 전당대회에서 나타났다. 이 전당대회에서 우선 소위, 청년(Jungen)이라 불리는 좌파 그룹은 급진적인 요구를 제기하면서 사민당 내에서 혁명적인 전략노선을 확고히 정착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 요구가 거부되면서 오히려 당내에서 그들의 정치적 기반이 붕괴되었다.<sup>18)</sup> 이 전당대회의 더욱 더 중요한 결과는 장차 사민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강령이 채택되었다는 것이다.<sup>19)</sup> 이른바 ‘에어푸르트 프로그램(Erfurter Programm)’이라 불리는 이 강령에는 상호 모순되는 두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이론적인 내용이,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강령을 통해 사회주의적인 ‘미래국가(Zukunftsstaat)’가 아닌 기존 국가에서도 개혁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입장이 공식적 승인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혁주의 노선을 추구했던 폴마가 에어푸르트 전당대회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았고, 제국의회에서 행해졌던 실용적인 활동이 1890년대 말까지 공식적으로 별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혁명이 아닌 개혁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의 입지는 당내에서 점차 강화되었다. 사민당 내부에서 개혁적인 노선이 관철되는 데에는 ‘수정주의(Revisionismus)’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 수정주의 노선은 당시 망명상태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베른슈타인에 의해 1890년 말부터 주창되었는데, 이 노선은 개혁주의 경향에 이론적인 측면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베른슈타인은 단지 실용적인 노동정책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카우츠키에 의해 매우 경제 결정론으로 각인되었던 마르크시즘의 수정, 즉 이론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수정주의는 사민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들을 유발시켰다. 1903년 드레스덴(Dresden)에서 개최되었던 전당대회에서는 베벨과 카우츠키에 의해 격렬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수정주의는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 이로써 수정주의는 당의 정책결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실용주의를 지향했던 좌파 노동조합인 ‘자유노조(Freien Gewerkschaften)’도 공식적으로는 수정주의 노선에 거리를 두었다. 사민당이나 자유노조가 수정주의 노선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지만 수정주의가 독일 노동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일부 사민당원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과 노동시간 등 노동자들이 당면한 노동관련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하려는 노동조합 지도자들 역시 암묵적으로 이 노선에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 2. 노동조합의 발전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크게 사민당의 정치적 노동운동과 ‘자유노조(Freien Gewerkschaften)’의 경제적 노동운동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사민당의 의회활동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노조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7) Bernstein, Eduard(1899), p.307.

18) Müller, Dirk H.(1975).

19) 에어푸르트 강령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특히, Gilcher-Holtey, Ingrid(1986), pp. 67-77 참조.

사민당과 자유노조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자유노조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민당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규명되어야 한다. 자유노조는 입법적인 영역, 즉 제국의회에서 자신들의 사회 정책적인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민당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민당 역시 당원 내지 선거지지자로서 자유노조의 노조원들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 사민당과 자유노조라는 이익단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공생관계였다. 그러나 자유노조는 건설초기 즉, 노조가 가장 약했던 시기 사민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했던 치욕의 시기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유노조의 부동의 지도자였던 칼 레기엔(Carl Legien)은 정치에서 노조의 정당 의존성을 지적하면서 사민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정책적인 입법을 필요로 한다. 노동조합의 기대에 상응하는 입법은 오로지 사회민주당에 의해 주장된다. 오로지 이 정당만이 이 (노조가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을 실제로 관철시키려 시도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오로지 사회민주당만을 자신들의 대표로 간주할 수 있다.”<sup>20)</sup>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유노조가 건립되던 시기인 1890년대 초기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두 축인 사민당과 자유노조 사이에는 동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민당은 노동운동에서 자유노조의 비중을 무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노조의 관심과 요구들은 사민당 내부에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민당은 1895년경까지 당 지도부의 기능들을 도맡았으면서 현실에서 경제적 이익을 지향하는 노조 위에서 일방적으로 군림했다. 1890년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폐기된 후 특히, 1900년을 전후해서 사민당과 자유노조 사이의 이러한 불균등한 관계는 두 거대 조직의 지도자들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원칙적인 문제 외에 사민당 간부들과 노조지도부의 갈등에는 세대차이도 한 몫을 했다. 사민당의 구세대 지도부는 1870년 독일제국의 건국 이전 혹은 1878년 사회주의자탄압법 제정 전후 당부의 가혹한 탄압하에 노조를 건설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노동자 상태의 본질적인 개선은 기존 사회질서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중심적인 관심과 노력은 정치적 해방운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민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자유노조 지도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사민당의 구세대 간부들로 하여금 불신을 갖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sup>21)</sup>

1890년대 초반 칼 레기엔을 위시한 자유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민당에 도움을 청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오히려 사민당은 자유노조를 단지 당원을 늘리는데 필요한 ‘모집학교(Rekrutenschule)’ 정도로 취급하면서 모든 노조원들에게 사민당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운동 내에서의 상황은 점차 변했다. 1900년도를 전후해서 자유노조는 구성원의 수, 조직 강도 그리고 자금력에서 사민당을 점차 능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sup>22)</sup> 이러한 노동운동진영 내부의 상황변화를 토대로 노조지도부內에서는 사회민주당과 자유노조의 관계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게 되었다. 자유노조가 사민당으로부터 독립해 자신들의 이해를 기준으로 노조정책을 결정하려는 노력은 ‘중립성논쟁(Neutralität)’과 ‘총파업논쟁(Massenstreik)’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sup>23)</sup> 이는 독일 노동운

20) Legien, Carl(1903), p.326.

21) Ritter, G. A., *Die Arbeiterbewegung im Wilhelminischen Reich*, p. 109.

22) Schönhoven, Klaus(1980), pp.261 이하;Varain(1956), p. 44 이하.

동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1900년 무렵에 벌어진 중립성논쟁은 결국 사민당으로 하여금 노조 위에 군림했던 과거의 지위를 포기하도록 하면서, 적어도 경제 영역에서는 노조가 사민당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총파업논쟁에서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노동자의 총파업에 사민당과 자유노조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다시 말해 총파업의 결정에 노조도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사민당과 자유노조지도부가 서로 결의하고 이어 1906년 만하임(Mannheim)에서 개최되었던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인을 받았던 협약을 통해 “두 조직의 이해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행동에 대해 자유노조와 사민당 지도부는 하나의 통일적인 처방을 마련 한다”<sup>24)</sup>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자유노조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민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동맹세력이 되었다.

사민당이나 자유노조 모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두 대중조직 사이에는 ‘현실작업(Gegenwartsarbeit)’의 평가를 두고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칼 에리히 보른(K. E. Born)은 두 조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정당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미래의) ‘목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노조는 그들이 현재 노동자들에게 마련해주려는 (삶의 무게의)경감과 (노동조건)개선들을 통해 존재이유를 증명 한다”.<sup>25)</sup> 그래서 빌헬름 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리추구 활동(praktische Arbeit)’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취했던 사민당과는 달리 자유노조는 “지금 존재하는 국가에서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자신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간주했다”.<sup>26)</sup> 따라서 자유노조는 사민당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사회정책에 참여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했다. 기본적으로 자유노조는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와 사회의 지배적인 권력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그들은 기업가, 관청 그리고 시민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타협하려 노력하였다. 이미 자유노조건설 초기인 1891년에 칼 레기엔은 향후 노조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실용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했다:

“폭력적인 전복의 시기는 지나갔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취된 것은 지속될 수 없으며, 오히려 오직 체계적인 처방을 통해서만 (기존)상태의 변화가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투쟁방법의 변화와 더불어 투쟁수단도 변화되었다”.<sup>27)</sup>

사민당의 정치투쟁과 더불어 독일 노동운동에서 또 하나의 큰 축을 형성했던 자유노조가 실용적인 정책을 선택하게 되면서 독일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전망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저명한 역사학자 클라우스 쇠호펜(K. Schönhoven)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급박한 붕괴를 기대하는 ‘붕괴이론(Zusammenbruchtheorie)’이 현실성을 잃으면 잃을수록, 노조는 자신들의 역량을 더욱 더 강하게 체제 내재적 과업 특히, 노동자상태의 개선을 위한 임금인상투쟁에 집중했다. 동시에 그들 진영에서 혁명에 대한 기대는 더욱 더 그들의 전략적인 사고의 변두리로 밀려났다”.<sup>28)</sup>

23) Mittmann, Ursula(1976), p. 195 이하.

24) SPD(1906), p. 473.

25) Born, K. Erich(1957), p.79.

26) Varain(1956), p.19; Steinberg, 1975), p.132 .

27) Legien, Carl(1891).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노조가 더욱 강력해지면서 1900년을 전후해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점점 더 사민당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더 포괄적인 노동자보호정책을 요구하였고,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의 권한을 더욱 더 제한하려 했으며, 사용자와 더불어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재판소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sup>29)</sup> 이러한 노동운동 내부의 변화는 제국의회에서 사회입법에 직접 관여하는 사민당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그들이 노동관련 입법에 관한 협상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 3. 제국의회의 위상강화

제국의회의 존재와 위상강화는 의회활동에 대한 사민당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제국의회는 성인남성 대부분이 참정권을 행사할 있는 일반선거권을 채택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당시 독일제국의 보수적인 정치문화를 상정했을 때 대단히 획기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비스마르크시기에 독일 제국의회는 사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공공 앞에서 표현할 수 있고 지지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헌법이 보증한 유일한 공간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수 없이 많은 새로운 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입법기관인 제국의회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sup>30)</sup> 비스마르크의 퇴임 이후에도 제국정부는 제국의회에 비해 월등한 권력을 행사했다. 정부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심지어는 이 헌법기구의 의지에 반해서도 현행법들을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1)</sup> 하지만 새로운 법안들을 제정하려 할 경우에는 상황은 달라졌다. 제국의회의 협력 없이는, 다시 말해 의회에 진출한 각 정파들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빌헬름 제국 시기 가장 중요한 법안이었던 ‘예산법안’과 ‘군 개혁과 전함건설법안(Heeres- und Flottenverlage)’의 입법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제국의회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데에는 비스마르크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치 환경이 변했다는 사실도 작용했다. 비스마르크의 집권 시기에 프로이센(Preussen)은 과반수이상이 자신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 상원(Bundesrat)’을 기반으로 독일제국을 통치했다. 이 시기 개별 연방정부들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 상원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제국차원의 정치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세기의 전환기, 1900년을 전후로 연방 상원의 역할과 지위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제국정책을 관할하는 제국정부의 부서들이 실질적으로 개별 연방 국가들과 연방 상원 위에 군림하는 ‘제국내각(Reichsministerien)’이 되면서 제국차원의 정책에 관련된 현안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이후 연방적 성격 내지 분산적 특징을 가진 기관이었던 연방 상원보다는 중앙적 성격을 가진 또는 제국을 포괄하는 헌법기관이었던 제국의회가 ‘제국내각’의 더 중요한 대화파트너로 자리 잡게 된다.<sup>32)</sup> 이는 사회정책을 입법화하는 데에도 해당되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 집권시기와 빌헬름 제국 초기까지 제국의 사회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프로이센 상공부를 대신해서 제국차원의 사회정책을 준비하는 역할에 ‘제국내무성(Reichsamt des Innern)’이 전면으로 부상했다.

28) Schönhoven, Klaus(1984), p.52.

29) Tenfelde, Klaus(1992), p.396; Puhle, Hans-Jürgen(1970), p.355.

30) Biefang, Andreas(2001), p.53.

31) Born, Karl Erich(1957), p.161.

32) Rassow, Peter(1959), p.301 각주 33번 참조.

제국의회가 제국의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사민당은 제국의회 선거에서 의석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이윽고 1912년에 실시된 제국의회 선거에서는 110명의 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제국의회에서 제 1당이 되었다. 의석수의 지속적인 확대는 사민당에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상과 중요성을 다시 자각하게 하면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주었다. 사민당이 적극적으로 의회활동에 임한 된 데에는 과거와 달리 선거지 지자들의 구성에서 이질성이 증가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제국의회에서 사민당 의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도시 노동자와 개신교적 소시민으로 구성되는 그들 지지자들 덕분이었다. 이러한 이질적인 지지계층은 단순한 선전이나 선동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민당이 자력으로 제국의회 위원회에 진출했다는 사실도 사민당의 의회활동에게 영향을 주었다.<sup>33)</sup> 비스마르크 집권 시기 제국의회 위원회 활동에서 보여주었던 사민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1890년 이래 변하기 시작했다. 1890년 제국의회 선거 이후 사민당은 늘어난 제국의회 선거승리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제국의회 위원회로 대표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의석수에 비례해서 파견되는 대표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까지 사민당에게 단지 여론에 영향을 주는 선전 내지 선동의 장으로 기능했던 제국의회 총회<sup>34)</sup>와는 달리 위원회의 진출은 사민당에게 선동 가능성외에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자유노조의 대표이자 사민당 의원이었던 칼 레기엔이 1909년 ‘노동회의소법안(Arbeitskammergesetzentwurf)’<sup>35)</sup>을 심의하는 비위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사민당의 의회활동에서 하나의 백미였다. 이는 이 법안이 당시 사회정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중요한 법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고무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사민당에게 적극적인 의회활동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과의 협력과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 4. 중앙당(Zentrum)과의 경쟁

중앙당은 1870년 독일통일과정에서 小독일주의가 관철되면서 창당되었다. 즉 가톨릭 오스트리아가 독일에서 배제되면서 독일지역의 카톨릭 신자가 소수파의 지위로 전락하자 가톨릭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창당되었던 것이다. 비스마르크가 집권했던 시기 소위 ‘문화투쟁’을 겪는 등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1880년대부터는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했고 빌헬름 제국 시기에는 수십 년 간 안정된 정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민당과 중앙당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관계였다. 빌헬름 시기 제국의회에서는 어떤 정당도 절대다수를 확보하고 못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연합세력을 갖는 것이 중요했다. 이 같은 상황은 사민당에게도 적용되었다. 사민당은 憲政영역에서 부르주아 정당인 진보당(die Freisinnige Partei)과 협력했던

33) “제국의회가 주목할 만큼의 정치 권력적 비중을 가졌기에 정치적 노동운동, 다시 말해 사민당의 활동을 통합하는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는 비팡(Biefang)의 테제는, “제국의회가 그에 내재된 정치적 취약함으로 인해 통합적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는 디터 그로(Dieter Groh)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팡의 다른 주장 즉, 제국의회가 이러한 통합기능을 이미 비스마르크 집권기간에 가졌었다는 주장은, 사민당이 이 시기에는 제국의회의 각 위원회에 자신의 힘으로는 진출할 수 없었고, 더욱이 그들이 의회활동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평가된다. Biefang(2001), p.53; Groh, Dieter(1973), p.29.

34) Tennstedt, Florian(1983), p.408.

35) ‘노동회의소법안(Arbeitskammergesetzentwurf)’에 관한 제국의회에서의 논쟁과 사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박규정(2004-a), pp.91-128 참조.

반면에, 사회 정책영역에서 주로 중앙당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했다.<sup>36)</sup> 제국의회의 입법 활동에서 중앙당은 빌헬름 시기 쏘기간 동안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수많은 법안들이 심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중앙당은 각 정파들을 탁월하게 중재하면서 법안이 성안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사민당과 중앙당의 전술적인 협력은 특히 1907년에 제정되었던 ‘제국조합법(Reichsvereinsgesetz)’의 협상에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났다.<sup>37)</sup> 중앙당은 세계관과 정치노선이 다른 “사민당과 불편한 연합으로”<sup>38)</sup>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반대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는데,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그들은 거의 유사한 시각을 보였다. 특히 정부안에 반대해 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한 두 정당의 수정안들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사회정책법안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중앙당은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서 사민당과 가장 유사한 입장을 견지했다.

중앙당은 의회활동에서 사민당에게 협력할 기회를 주었지만 어려움도 야기했다. 바로 지지하는 계층이 서로 중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중앙당은 보수적인 정당이었지만 공동체를 지향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지향하였다. 빌헬름 시기 강력한 노동조합 중의 하나였던 ‘가톨릭 노동조합’은 가톨릭 노동자들로 결성된 노동조합으로 중앙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중앙당은, 한편으로는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미 1890년 제국영업조례의 개정에 즈음해서 아우구스트 베벨은 중앙당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경고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중앙당은 많은 의석수를 기반으로 제국의회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당은 제국의회에서 노동자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사민당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당이었다.<sup>39)</sup> 이미 1890년 이래 중앙당은 노동자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사회정책 정당(sozialpolitische Partei)”으로 발전했고<sup>40)</sup> 유권자인 노동자 대중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사민당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 노동자의 지지는 단지 ”공허한 언어적 수사“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회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사민당도 역시 유권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당이기엔 이러한 기본적이고 현실적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V. 결론

비스마르크의 집권 시기(1870-1890) 독일 사민당은 제국의회의 활동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빌헬름 시기(1890-1914)에 들어 사민당 대표들은 정부가 제국의회에 제출한 법안들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반박하고 가장 많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종래의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의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민당의 이러한 태도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첫째, 사민당 내에서 점차 개혁주의가 관철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890년에 실시되었던 제국의회 선거의 승리는 게오르크 폴마가 중심이 된 실용주의 진영을 고무시켰고, 이들은 사민당이 혁명보다는 증가된 의석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의회활동을 함으로써 사회개혁을 주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

36) Martiny, Martin(1976), p.58.

37) 제국결사법의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박규정(2006), pp.96-124 참고.

38) Rassow, Peter & Born, K. Erich(1959), p.343.

39) Bebel, Augus(1890/91), p. 327.

40) Tennstedt, Florian(1983), p.408.

다. 당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러한 개혁주의 노선은 점차 당의 정책결정에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실용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발전이다. 특히 1900년대 초기부터 사민당에게 현실정치를 주창한 자유노조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과거 사민당의 하부조직으로 평가받았던 자유노조는 1895년 이래 질적 및 양적으로 꾸준히 발전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장을 반영해서 사민당의 제국의회 의원들 중 자유노조 지도자 출신이 점차 늘어나고 1912년에 이르면 이들이 전체 사민당 의원들 중 3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특히 사회정책에 관련된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되고 결정되는 제국의회 위원회에는 거의 대부분 자유노조출신의 사민당 대표들이 파견되었다.

셋째, 합법적인 헌법기구인 제국의회와 존재와 중요성의 증가였다. 19세기 말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사회적, 경제적 변화들은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의 개정을 빈번하게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입법을 담당하는 제국의회와 위상은 현저하게 높아졌다. 물론 입헌군주제라는 정치시스템 하에 한계들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제국정부도 제국의회와의 타협 없이는 원활한 국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는 제국의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정부도 이런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야 했다. 1890년 이래 꾸준히 의석수를 확대한 사민당은, 당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물론 존재했지만 가장 중요한 헌법기구 중의 하나가 된 제국의회에서의 활동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중앙당의 존재와 활동이었다.

넷째, 중앙당과 사민당은 제국의회 선거에서 노동자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 특히 1890년대 말 이래 중앙당이 노동조건과 노동자상태의 개선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채택하면서 노동자 표를 둘러싼 두 정당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들을 지지하는 노동자계층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다양한 것들을 요구했다. 대다수 독일 노동자들에게는 언제 올지 모르는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현실에서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이를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이 훨씬 더 절실했고, 이러한 요구들은 구체적인 의회활동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나의 정당으로서 사민당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요청들을 정책에 반영해야 했다.

## 참 고 문 헌

- 박규정, 「독일 빌헬름 시기 노동회의소법안을 둘러싼 논쟁들」, 『서양사론』 81호, pp.91-128.
- 박규정,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부여에 관한 논의와 1908년 제국 결사법」, 『독일연구』, 11집, pp.96-124.
- 박규정, 「빌헬름 제국시기 노동재판소법(Gewerbegerichtsgesetz)의 성립에 관하여」, 『독일연구』 7집, pp. 23-48.
- Bebel, August, "Die Gewerbeordnungs-novelle", *Die Neue Zeit*, Vol. 9 no. 2(1890/91).
- Bernstein, Eduard, "Bernstein an Adler", Adler, Vicktor, ed., *Adler Briefwechsel*, 28. 3. 1899, p. 307.
- Biefang, Andreas, "Die Sozialdemokratie im Reichstag. Das Parlament als Faktor der Integration 1871-1890", Tenfelde, Klaus, ed., *Mitteilungsblatt des Instituts für soziale*

- Bewegung. Forschung und Forschungsberichte*, Vol. 26(Bochum, 2001), pp. 25-54.
- Born, K. Erich., *Staat und Sozialpolitik seit Bismarcks Sturz*(Wiesbaden 1957).
- Braun, Bernd, *Hermann Molkenbuhr (1851-1927). Eine politische Biographie* (Düsseldorf, 1999).
- Gilcher-Holtey, Ingrid, *Das Mandat des Intellektuellen. Karl Kautsky und die Sozialdemokratie* (Berlin 1986).
- Groh, Dieter, *Negative Integration und revolutionärer Attentismus. Die deutsche Sozialdemokratie am Vorabend des ersten Weltkrieges* (Frankfurt a.M., 1973).
- Legien, Carl, "Die Stellung der Gewerkschaften zur socialpolitischen Gesetzgebung", *Sozialistische Monatshefte*, Vol. 7. 1903 1. Bd., pp. 319-326.
- Legien, Carl, Correspondenzblatt der Generalkommission der Gewerkschaften der Deutschaldns, 1891 년판, no. 8 .
- Martiny, Martin, *Integration oder Konfrontation? Studien zur Geschichte der sozialdemokratischen Rechts- und Verfassungspolitik*(Bonn-Bad Godesberg, 1976)
- Matthias, Erich, "Kautsky und der Kautskyanismus. Die Funktion der Ideologie in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vor dem ersten Weltkrieg", Fetscher, Iring ed., *Marxismusstudien*, Vol. II, (Tübingen, 1957), pp. 151-197.
- Miller, Susanne, *Das Problem der Freiheit im Sozialismus. Freiheit, Staat und Revolution in der Programmatik der Sozialdemokratie von Lassalle bis zum Revisionismusstreit* (Berlin-Bonn/Bad Godesberg, 1963.)
- Mittmann, Ursula, *Fraktion und Partei. Ein Vergleich von Zentrum und Sozialdemokratie im Kaiserreich*( Düsseldorf, 1976).
- Müller, Dirk H., *Idealismus und Revolution. Zur Opposition der Jungen gegen den Sozialdemokratischen Vorstand 1890 bis 1894*(Berlin, 1975).
- Molkenbuhr, Hermann, "Positive Leistungen der Sozialdemokratie", *Die Neue Zeit*, 25 Jahrgang, Bd. 2, no. 27, 29, und 30, pp. 21-29, 1907, pp. 93 - 98, pp. 118-128.
- Pracht, Elfi, *Parlamentarismus und deutsche Sozialdemokratie 1867-1914*(Pfaffenweiler, 1990).
- Puhle, Hans-Jürgen, "Parlament, Parteien und Interessenverbände 1890-1914", Stürmer, Michael ed., *Das kaiserliche Deutschland*(Düsseldorf, 1970), pp. 340-377.
- Rassow, Peter & Born, K. Erich, ed.. *Akten zur staatlichen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1890-1914*(Wiesbaden, 1959)
- Ratz, Ursula, "Arbeiterbewegung und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Neue Politische Literatur* 27, 1982, Heft 1, pp 304-318.
- Reichstag,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deutschen Reichstages*, 10. Legislaturperiode, 1. Session, Vol. 3, 1899년 6월, 92 차 회의, p. 2519.
- Ritter, G. Albert., "Sozialdemokratie und Sozialgeschichte 1909-1914",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Vol. 17, 1977, pp. 458-466.
- Ritter, Gerhard A., *Die Arbeiterbewegung im Wilhelminischen Reich. Di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und die Freien Gewerkschaften 1890-1900*(Berlin, 1959)

- Roth, Guenther, *The Social Democrats in Imperial Germany. A Study in Working-Class Isolation and National Integration*, (Totowa, 1963).
- Schönhoven, Klaus, *Expansion und Konzentration, Studien zur Entwicklung der Freien Gewerkschaften im Wilhelminischen Deutschland 1890 bis 1914* (Stuttgart, 1980)
- Schönhoven, Klaus, “Die Freien Gewerkschaften zwischen Reichsgründung und Weltkrieg: Organisationsentwicklung, Strukturprobleme und Programmatik”, Matthias Erich & Schönhoven, Klaus, ed., *Solidarität und Menschenwürde. Etappen der deutschen Gewerkschaftsgeschichte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Bonn, 1984)p. 39-57.
- SPD, Protokoll über den ersten Congreß der social-demokratischen Arbeiterpartei(Leipzig, 1870).
- SPD, Protokoll über den sechsten Congreß der sozial-demokratischen Arbeiterpartei(Leipzig, 1874).
- SPD, Protokoll der Verhandlungen des Parteitages des soziodemokratischen Parteitags (Hamburg, 1897).
- SPD, Protokoll der Verhandlungen des Parteitages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Berlin, 1906).
- SPD, Protokolle der Verhandlungen des Parteitages des soziodemokratischen Parteitags(Halle, 1890).
- Steinberg, Hans-Josef, *Sozialismus und deutschen Sozialdemokratie. Zur Ideologie der Partei vor dem 1. Weltkrieg*(Bonn-Bad Godesberg, 1972).
- Steinberg, Hans-Josef, “Die Entwicklung des Verhältnisses von Gewerkschaften und Sozialdemokratie bis zum Ausbruch des Ersten Weltkrieges” Vetter, H. O. ed., *Vom Sozialistengesetz zur Mitbestimmung*(Köln, 1975),
- Tenfelde, Klaus & Ritter, Gerhard A., *Arbeiter im Deutschen Kaiserreich*(Bonn, 1992),
- Tennstedt, Florian, *Vom Proleten zum Industriearbeiter. Arbeiterbeegung und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1800-1914*(Köln, 1983)
- Varain, Heinz Josef, *Freien Gewerkschaften, Sozialdemokratie und Staat. Die Politik der Generalkommission unter der Führung Carl Legien(1890-1920)*(Dusseldorf, 1956), p.45

Abstract

#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Reichstag in Wilhelm Germany (1890-1914)

Gyu-J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attitude of the Social Democrats toward the Reichstag in Imperial Germany. Imperial Germany consisted of the Bismarck(1808–1890) and the Wilhelm period(1890–1914). In the Bismarck period, the Social Democrats were passive and negative in the Reichstag, but the Wilhelm period, they showed active and positive activities. Namely, the attitude of the Social Democrats was changed in time. Which factors determined their attitude in this period?

They were an entrance of reformist line i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ir expansion, the growth of trade unions, the improvement of status of a German Parliament(Reichstag), and the existence and activities of a catholic party(Zentrum).

In Bismarck period, only small number of the Social Democrats was elected to the Reichstag, but Wilhelm period, a member of Reichstag from Social Democratic Party was increased greatly. In this situation, he reformist line of the Social Democrats had advocated that the Social Democratic Party didn't stir up yet a revolutionary upheaval, but should be a practical party which could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working class in Reichstag, and it was accepted in time.

The trade unions that supported, were organized after 1890 and expanded greatly in the Wilhelm period. They demanded the social policy that could improve a life chance of working class. Only active and positive activities of the Social Democrats in the Reichstag could satisfy this demand.

In the Bismarck period, the Reichstag had weak political power. Therefore, even if a party became a majority party, he couldn't play an important political role in imperial policy. So the Social Democrats didn't take interest in the Reichstag at that time. But a political situation was changed in the Wilhelm period, and the Reichstag became one of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in Imperial Germany. So the Social Democrats that

---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Humanity, Kyung Hee University

---

held many seats couldn't give up an active and positive activities in this institution.

The Zentrum as a catholic party was one of most important parties in the Wilhelm period that determined an imperial policy. At that the Zentrum tried to improve the life of worker, so a part of worker was supporting this party. Because of this situatio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s a labor party had to compete against the Zentrum in election for the Reichstag. In order to gain the support of working class, the Social Democrats had to bend over backward to meet the worker's demand, and the demand was active and positive activities in the Reichstag.

■논문접수일 : 2007년 4월 18일, 논문심사일 :2007년 5월 4일, 게재확정일 :2007년 5월 17일